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文盲者七七% 義務敎育과成人敎育을促進하라

一

昭和五年 十月一日 全朝鮮에 一齊히 施行한 國勢調査의 統計가 前版부터 集計되는바 最近 朝鮮人의 文盲調數라는 貴重한 材料가 綜合되엿다。 이 統計에 依하면 全朝鮮總人口 二千一百五萬八千餘人中朝鮮人은 二千四十三萬八千餘人인바 그中 文字를아는사람은 (六歲以上)朝鮮文만 아는사람, 朝鮮文及日本文을다아는사람, 日本文만아는사람을 合하야 四百五十四萬九千餘人이오, 그나머지 一千五百八十六萬八千餘人은 아즉 文字를 理解치못하는 文盲이라 한다。 그러므로 朝鮮人의 文字 理解者는 全人口의 겨우 二二•三%에 不過하고, 其餘 七七•七%는 完全한 文盲이다。 그리고 文盲者의 百分比를 年齡別로 보면 六歲로부터 九歲間의 八八•四%가 가장 만코, 二十歲로부터 二十四歲間의 六四•九%가 가장적으며, 男女別로 보면 男子는 六三•九%, 女子는 九二%이어서 女子에게 斷然文盲者가 만타。

二

吾人이 이統計를 一瞥할때 直覺的으로 생각되는것은세가지다。

첫재 全人口中에서 文盲者가 七七•七%라는 多數를 占한 點이다。 現下 全世界는 다투어 敎育을 普及시키고 文化를 向上하기에 힘쓴다。 그리하야 獨逸, 日本가튼데는全人口의九九%까지가 (滿六歲以上)文字를 理解하고 따라그國民들은 新文化를 輸入하고, 新文化를 創造하야 그國家及世界에 寄與하는바 크다。 그런데 朝鮮은 文盲이 만흐므로 國家及 世界에 貢獻함이 적을뿐아니라, 도리혀 國家行動上, 世界文化上 支障이될 이 만타。 卑近한 例를 들면 文盲이 만키때문에 行政機關에서 附하는 告知書한장을 읽지못하야 納稅期日을 노치고, 鐵道驛前에 써부친 驛名을 읽지못하기때문에 내릴곳을그대로通過하는 일이만타。 況近代産業이 全部近代的 科學知識에 依하야 運轉되고, 政治의 運轉이 民衆의 利益을 土臺하는때이랴。

三

둘째는 六歲로부터 九歲間의 兒童中에서 文盲이 가장 만흔것이다。 六歲로부터 九歲까지는 義務敎育이 實施되는 곳에는 全部가 就學하는年齡이다。 그런데 이들 兒童의八八•四%가 文盲이라함은 거이八〇%가 就學치못햇다는것을 證明하는것이니, 어찌寒心치안흐랴。 現下世界各國은 거이다 그 國民에게 初等學校의 義務敎育을 「强要하고잇거니와, 이것은 將次 國家의重任을 걸머질 國民이 되기에 充足하도록 敎育을 시키고저 함이아니랴 이點으로보면 吾人은 오즉朝鮮兒童들을 보아 寒心하게 생각케된다。

■ 那邊의 생기지는 女子의文盲이 男子보다 一層 더만흔 것이다。 一家庭으로보나、一國家로보나 女子가 男子와가티한構成員이되어서 그任務를 다하라면 敎育이必要하고 따라, 最少限度의 敎育인 文字의 理解가 必要한것을 街道 走卒도 아는바이다。 이것이朝鮮에서는 窒息할만한 數字를 보이니 어찌 家庭과 社會에 幸福이 잇스며 平和가잇스랴。

五

方今 當局은 一面一校制의 實施와 아울러 簡易學校의增設, 農村振興의 一策으로서의 文字普及等을 實行하고잇다。 그러나 現下 初等學校 兒童의數는 不過六十萬을 上下할 뿐이오, 學齡兒童 總數를 四百萬으로 잡드래도 學齡兒童의 一割五分박게 就學되지못하니 假使 一年에 簡易學校 一、二千個 더 設立되엇자 十年以內에 學齡兒童의 四割이 就學되지못할지며、文盲은 依然, 膨大한 數字를 示할것이다。 況 農村振興策으로서의 文字普及은 그成績이 매우 寂寥한바잇스니 一年에 文字理解者가 數萬을 算하면 好成績인 形便이다。

六

그러므로 當局이 朝鮮의 文盲을 一日이라도 速히 退治할 意思를 實現하라면 簡易學校의 增設이라든가, 農村振興策의 一部로서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學齡兒童의 義務敎育을 實施하고、民間의 講習所를 自由制로 하야 獎勵하며 또 地方費 其他 面費로서 各面에 簡易한 成人敎育機關을 設立하야 國庫補助를 주어서 實施할것이다。 그리한다면 十年을 넘지 안아 全人口의 五割은 文字를 理解하게될지니, 이것은 人民에게 界從의 富를 增加시킴보다도 效果가 클것이다。

當局은 日常朝鮮의 民度民力을 들어 實施의 尙早한것을 力說하나, 朝鮮現下의民度民力이 日本內地에서 義務敎育을 實施한 明治二十年頃보다 못하지안흔뿐아니라 그以上인것은 本欄에 累次 論評한바다。 當局의 反省을 促하는바다。

藍衣社解散을 西南派强硬主張

王氏의 西南說伏工作도 水泡 對中央關係依然惡化

【上海二十一日發聯合】 王寵惠氏는 兩次南下의 旅行을맛추고 二十一日正午프레시덴트크리뷔란드號로 上海에歸着하야 直時汪精衛氏에 報告懇談을行하엿는데王寵惠氏는氏는西南의 中央에對한 誤解는一掃되엿다고 闡明하엿다 그러나 胡漢民氏의 北上實現及合作의 前提로서

一、廣東福建兩境에 駐屯하는 中央軍의撤退

二、國民의 生命安全言論自由를 確保키爲하야 藍衣社解散

의 二點을 中央에對하야頑强히要求하고 잇는터로 中央은 此等條件을 完全히容認키는困難하다는模樣인즉 西南、南京의合作은 前途가아직도晦澁하다고 보인다 말하자면 王寵惠氏의南下는 合作問題의 局面打開에何等의 收穫이업는셈이다

支拂保障問題 蘇、依然强硬主張

北鐵問題結局越年

【東京電話聯合】 駐日蘇聯邦大使유레니에프氏는 二十一日午後二時 外務省에 廣田外相을訪問하고去十日 廣田유레니에프北鐵細目交涉에서 廣田外相으로부터提出한 保障問題物價査定案에對한 廣田讓步案에 對하야 莫斯科政府의回訓內容에따라折衝을行하엿는데 其中 保障問題에關한 莫斯科政府의 回訓은 依然히 日本政府又는 日本銀行側의 滿洲國에 對한 支拂保障을 要求하는從來의主張을 固執하는模樣으로 아직도將來多大한波瀾이잇슬것으로 豫想되다 北鐵讓渡는 이리하야 未解決된채로越年될것으로 보인다

社會事業團體에 下賜金御吩咐

【電通東京電話】 天皇陛下께압서는 歲末에際하사全國私設善良社會事業團體及 關西風水害、東北凶作各地方의 社會事業二十五團體에下賜金의御內吩咐가게시압서二十一日午後湯淺宮相으로부터 各各傳達手續을取하엿는데 그總額은約十萬圓에達한다고拜承되다

海軍問題新工作 米國政府는否定

【華盛頓二十日發聯合】 日本政府가 華府條約廢棄를決定한 結果 現行海軍兩條約은 드듸여 一九三六年十二月末日로써 滿期終了키로되엿는데 米政府當局은 右條約滿期에이르는二個年間의 猜疑와誤解를避키爲하야 締結各國政府에對하야 華府、倫敦兩條約에

廢棄通告決定과 헐國務長官態度

【電通華盛頓廿日發】 日本의 華府條約廢棄決定에對하야 米國各方面에서 種種한批判을 내리고잇는中에 國務省側에서는 絕對로沈默을직히고 잇는데헐國務長官은 日本으로부터 實際廢棄通告가잇스면 條約의規定에基하야 이를各調印國에通達할터이나 그때까지에는 米國으로서는 何等의行動도 取지안할方針이다 라고 暗示하야 廢棄如何에關하여는 依然 一言도 批評지 안하엿다

政府米買上 五十八萬九千石

申請受附一月八日까지

【電通東京電話】 農林省發表 =今月四日實施한 日本內地米買持時에生긴 買入不足數量에關하야 如左히 買入을行하기로決定하엿다

一、買入豫定數量 五十八萬九千石

二、買入時期

保證金受付 昭和十年一月七日

申請受附 一月八日

買入決定 一月十日

保證金은 昭和九年十一月農林省告示第四一六號에依함

審議會設置의 急速具體化準備

三長老의意見一致를기다려 議會再開까지大綱決定

【電通東京電話】 國策審議會設置에關하야 岡田首相으로부터 考究하라는依賴를바든床次町田兩相은 二十一日正午閣議散會後 首相官邸에서 高橋藏相과 會見하고國策審議會設置의主旨와 經過說明을行하는同時에 藏相의意見을 聽取키로 되엿는데 高橋藏相으로서는閣內가一致하야 設置를必要할境遇에는 積極的反對를하지안코 그리고 政府는三長老의意見一致를기다려 實質的 審議는 來春四、五月頃에 될터이나 議會再開까지는 大體의組織과統制에關하야 大綱을 決定하고 實施에伴할豫算을 通常議會에 提案할意圖이다 그러나政界의 客觀情勢는 政府가當初計畫한 當時와 큰變化가잇슴으로 再檢討한後에 積極的工作에着手할必要가잇스나 表面은어데까지非常時局에對應키爲하야 政府의諮問機關으로 行政、財政 稅制의各般에亘하야 根本的國策樹立을圖하려는것으로 反對意見을 表明하고잇는 政友會라할지라도 一方에잇서民政黨과提携하야 政策協定을行할意圖가잇는以上 政府의眞意를 諒解하면 반드시贊同하리라는 方針을 세우고잇다 그리고構成分子로서는 首相을會長으로 委員에는 重臣中의人物과貴衆兩院의 議員財界의巨頭를網羅

國策審議會에關한 高橋藏相談

【電通東京電話】 國策審議會設置問題에關하야 高橋藏相은 如左히말하엿다

國策審議會의이야기는아모것도 進展되지안하엿나 余는今日처음이야기를 들엇다 趣旨에는 贊成임으로組織과方法만조흐면 조타고생각하야 床次、町田兩君에 調査키를希望하여두엇다 前에自己가提唱한 無任所大臣을두자는것은 政黨이 國家本位로協力하여달라고 생각한것임으로 鈴木君이 承諾치안하면 若槻君에게 請하려하엿다 今番의 國策審議會는 이런一時的의 것이아니고 永久的인것인즉 組織과方法에 關하야充分히調査하라고 말한것이엿다 審議會는 岡田首相의發議인지아닌지는 알수업다

米中航空路計畫 來一月試驗飛行

처음엔郵便物輸送뿐

【電通香港二十一日發】 中國側의確報에依하면 일직부터米國政府로부터 國民政府에交涉中이든米中間太平洋連絡航空路開設은最近에드듸여 具體化하야 來一月시코로스키大型飛行艇으로廣東까지 試驗飛行을行하기로되엿다고한다 右計畫內容은中國航空公司에그路線資金으로 五十萬元을支給하고 如左한路線에依하야 長驅七千五百二十哩를五日間에 飛翔할豫定이라고하는데 主要한寄航地는 호놀루루•미드웨이•자바•마니라廣東이다 右太平洋橫斷路는純粹한商業航空路로하야 最初는單純히 郵便物輸送의片道飛行을 行하다가그成績에依하야 旅客輸送을開始할豫定인데 時期만은各方面의 注意를끌고잇다

拓務省人事異動

【電通東京電話】 拓務省의分課規定改正에伴한 人事異動은 不遠間斷行될터인데 理財課長에는 現商工課長郞島勝氏가轉任하고 又商工課長에는 現交通課長稻垣征夫氏가轉任키로內定되엿다

人事•集會

▲金剛坤氏(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理事長) 財團法人完成人事次來社

夕刊後의市況 (廿一日)

[illegible] 九八九〇 先限 八一九〇 [illegible] 五九四〇〇 [illegible] 六〇五〇〇

米價의將來 (四)

統制政策의本質

徐椿

(二)季節的調節買入及賣渡

쌀은 一年間 統計로 보아 需要對供給에 過不足이생기어도暴騰又는 暴落을 演出하지마는 一年間需要對供給은過不足업시 마즈면서도或은供給이 不足하면서도米穀의市場價格가 一時的으로巨量이殺到又는輸送하기때문으로(一)殺到期에 잇서서의暴落又는(二)殺到期經過後에잇어서의 暴騰을 演出하는境遇가 잇다。 이제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日本內地나 朝鮮은 勿論하고、多數의 小農階級은 稅金、負債、各節準備等의 必要에 依하야 自家生産米를 新穀出廻期(十一月부터 翌年二月까지)에 投賣하고마는 事情이 잇다。 그들은 翌年三月以後까지 쌀을 가지고 잇으면 반드시 米價가 騰貴할것을 알면서도 目前의 必要에 쫄니어서 所有米를 一時에 放賣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例年의 實例를 보면 多數의 小農階級의 投賣가 原因이 되여、米價는 新穀出廻期에는 暴落을 演出하고、出廻期經過後에 잇서서는 暴騰을 演出하는 傾向이 만타。 따라서 이 現象을 自然에 放任한다고하면、一年間의 統計로본 需給如何에 不拘하고、新穀出廻期에는 米價는 最低價格을 아래로突破할 危險이 잇고、出廻期經過後에는 最高價格을 우로突破할 危險이 잇다。 故로 米穀統制法은 이 危險을 未然에 防止하기爲하야 그第四條로서、季節的調節買入及賣渡의 制度를 規定해 노흔것이다。 이제 說明대신으로 條文을 紹介해 보건대 「政府는 道府縣으로부터 該地域外에 又는 朝鮮或은 臺灣으로부터 內地에 移出되는 米穀의 數量을 月別平均的이 되게 하기爲하야 勅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出廻期에 잇서서 米穀을 買入하며、出廻期後에 잇서서 米穀을 賣渡함을 得함」이라고 잇다。 그런데、出廻期의 米穀買入은 最低價格維持를 爲한 間接方法이오、出廻期後에 잇서서의 政府의 米穀賣渡는 最高價格維持를 爲한 間接方法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注意할것은 政府가 季節的調節買入을 行할때에는 前記第三條와가티 公定價格에 準據하야 行하는것이 아니라、그때그때의 時價에 準據하야 行한다는 事다。 이제 이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米穀統制法第三條의 買入과 第四條의 買入과는 根本的으로 그性質을 달리한다。 第三條의 買入은 반드시 最低價格(例하면 二十四圓三十錢)으로 行하나 第四條의 季節的調節買入은 그때그때의 時價(或은 最低價格以下或은 最低價格以上)로 行하며、또 第三條의 賣渡는 반드시 最高價格(例하면 三十一圓五十錢)에 依하야 行하나、第四條의 季節的調節賣渡는 그때그때의 時價(或은 最高價格以上或은 最高價格以下)에 依하야 行하는것이다。 또한가지 相異한 點은 第三條의 規定에 依한 政府의 米穀買入은 受動的인데 對하야 第四條의 規定에 依한 政府의 米穀賣買는 能動的이라는데 잇다。 詳言하면 第三條의 規定에 依한 政府의 米穀買賣에 잇서서는 반드시 民間의 賣渡申込을 기다려서야 政府는 米穀買入을 行하며、반드시 民間의 買入申込을 기다려서야 政府는 米穀賣渡를 行하도록되어잇스나、第四條의 規定에 依한 政府의 米穀賣買에 잇어서는 政府가 能動的으로 自己가 適當하다고 보는時期를 擇하야 或은 買入하며、或은 賣渡할수가잇다。 勿論、時期를 自由로 擇한다고 할지라도、第四條의 法文解釋上、비록 季節的調節賣買라고 할지라도 出廻期에 잇어서의 賣渡又는 出廻期後에 잇어서의 買入은 不可能한것은分明한일이다。 (續)

英濠間一週間에 老大한航空計畫

今後二年間에實現

【倫敦二十日發聯合】 航空次官삿슨氏는 英下院二十日午後의會議에서 英帝國航空路擴充計畫을 發表하엿는데 今後二年間에 實現될터로 實施된時는英本國과濠洲間은 겨우 一週間으로 連絡될터이다 計畫內容은如左하다

◀印度所要日數二日除 一週四回乃至五回

◀新嘉坡及케이프타운所要日數四日間、一週三回

◀濠洲所要日數七日間 一週二回

通告文은廿七、八日頃 헐長官에手交?

【東京電話聯合】 政府는華府條約廢棄通告에關한件이 十九日의樞密院本會議에서 可決되엿슴으로 二十一日의閣議에서 直時그廢棄通告手續을取하기로 決定하고 岡田首相이 文書로써 上奏御裁可를 仰할手續을 取하엿다 右廢棄通告文은 廣田外相은 二十二日 齋藤駐米大使에 送付할터이다 齋藤大使는 米政府와 協議한後 二十七、八日頃通告文을 國務長官에게手交하야 이로써 華府條約廢棄通告에關한 一切의手續은完了하게될것이다

貴衆兩院各派分野

【東京電話聯合】 第六十七議會는드듸여 二十四日에 召集될터인데 二十日現在의 貴衆兩院各派의 勢力은如左하다

◀貴族院

皇族	御十八方
研究會	一五七
公正會	六七
火曜會	四一
交友俱樂部	三八
同和會	三四
同成會	二三
無所屬	三四

◀衆議院

政友會	二六一
民政黨	一一八
國民同盟	三一
第一控室	二七
無所屬	二
計	四三九

(그리고缺員二名은 過般政友會를脫黨한 秋田淸 津崎尙武의 兩氏)

藏相意見에徵하야 國策審議會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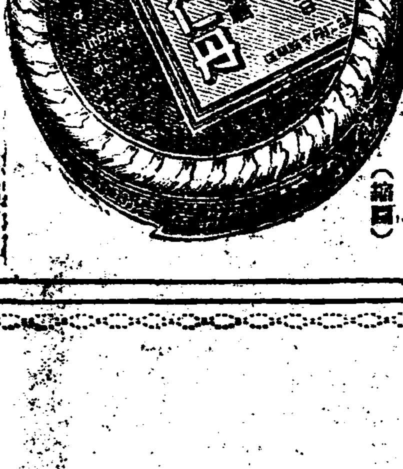
三相會議決定內容

【東京電話聯合】 政府는 國策審議會設置의必要를 痛感하고 非常時부터 研究中이든바 對政友會關係等으로아직 具體化하지못하엿섯는데 來通常議會의 休會가 끗나기까지에 具體化식힐決意를가지고、床次、町田兩相이 協議하든中 二十一日의 定例閣議散會後床次遞相、町田商相、後藤內相은 남어잇서 國策審議會設置에關한 審議를 進行하엿다 이問題에 關하여는 高橋藏相의 意見을 徵한後決定할必要가잇다고 決하고 同審議會의 組織內容에 關하여도 種種意見交換을 行한 結果 町田商相은 同日午後 高橋藏相을 訪問하고 種種協議하엿다

하야 其下에 權威잇는 顧問的 엑스퍼트를 모아 調査機關을 成立식히려하는것이다 表面은 國策的見地에서는것이라하나 裏面은 依然政黨을 除한 內閣補强工作等의 效果를 多分으로包藏하고잇슴으로 其成否는政局에 重大한關係를 갓고잇슴으로 其推移는 重大視되여잇다

政友會幹部 聯合協議會

【東京電話聯合】 政友會에서는 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芝三緣亭에서 幹部政務調査會役員의 聯合協議會를열고 若宮幹事長의 人事가잇슨後 砂田會長으로부터 稅制、産業、貿易의三大問題에關하야 說明이잇섯는데 이에對한種種意見開陳이 잇슨後이를可決하고午後二時부터 本部의政務調査會에臨하엿다


旅行中에

이저서는안되는齒磨

簡便하고닥는맛이조코

이를히게빗내는齒磨

半煉와仁丹齒磨 全國煙草店에잇슴 (縮圖)

カタログ進呈

工場을가진 卸問屋

名古屋市中區矢場町一ノ切

合資會社 アイチ蓄音器商會

電話中局一六四一番 振替名古屋一七三八番

工場에서直接御家庭에

急告

貴店에서歲末歲首에小賣하실唐楠은 品好價廉한興國唐楠을 準備하시옵소서

去來上背信하는일이잇다면 絕對로責任을질터이오니 安心하시고下命하야보시요

◎時勢表進呈!! ◎見本品進呈!!

天下一品 興國唐楠 到處歡迎

▲品質絶佳 ▲價格最廉 ▲美味滋養 ▲迅速酬應 ▲在庫豐富

京義線沙里院 興國唐楠社 振替京城一九六七六番

鹿矢票 TRADE MARK

冬物品揃 毛織 メリヤス オーバー セーター 手袋・靴下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心才橋筋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洋服界의合理化 品質仕立은責任保證付

◆見本送呈

十八圓부터 五十錢 三十圓까지 別誂注文 冬服脊廣三揃

十五圓부터 二十七圓까지 別誂注文 オーバー

既製品 セビロ 九圓、十三圓、十八圓 オーバ 八圓 ...

大阪市谷町一丁目十四番地 正司憲商店 洋服直信販賣部

代理店募集

冬向子供服品揃

店舖申込者에限하야 型錄送呈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心才橋筋 子供服製造卸 合名會社 梨木商店 創業明治二十八年

大阪着名問屋案內

冬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第一劇場

二十一日より特別大公開 名映畫短期上映週間 上映順

一、ユニヴァーサル特作 △聖林大騷ぎ

二、ユニヴァーサル特作 △爆彈パイナップル

三、ユニヴァーサル特作 △珍軍参鬪班

黃金町五丁目 電光七一五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時代劇名篇 天明椿本傘 全十卷 阪東好太郎主演

米國子래센트社作品 喜劇 신수조흔나그네 全八卷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名篇 銀界縱走 全十卷

十二月二十一日부터二日間 日曜祝日은 晝夜三回興行 時間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始映 普通은 밤七時一回始映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浪花館

明治町一 電本三六

M•G•M超特作日本版 監督ジャック・コンウェイ 主演 ウォルター・ヒューストン ロバート・モントゴメリー

△ベル、ビロウ

空襲下を突き敵艦隊の猛攻擊を潜り敵彈より巨彈を雨と浴びつつ敵軍港を閉塞に向ふ忠勇義烈鬼神をも泣かす潜水艦上の護國の勇士!!

朝鮮劇場

二十一日밤부터 硏劇舍公演 (連日滿員熱狂的歡迎裡에第一週終幕) =第二週레퍼-토리=

李雲芳作 눈물이언때 壹幕

李雲芳作 歸鄕 壹幕

幕間 獨唱 金吉順、張一朵紅、池季順、全玉

딴센스 =池崔順 李鍾哲 서울째즈밴드出演

申不出作 喜歌劇 十萬弗 壹幕

豫告 = 李雲芳作 不良者의 아버지 = 朴英鎬作 骨肉 青年

仁寺洞 電光三六

靴界 信用本位

登錄商標 覇王 堅牢無比

京城 朝鮮고무工業所

二十一日 夜間부터

開館自祝披露大興行

華麗를자랑하는 • 全鮮第一의 • 映畫殿堂誕生의 • 第一聲

마음의綠野 空軍의覇者 封切

團成社

文盲統計에나타난 學齡兒童悲慘相

最高齡者文盲을除하고는 少年文盲이最高率

가보=소화오년시월일일현재조선국세조사의결과는최근그수자적정계가완성되어각방면의수자가 발표되엇는데 그에의하면 조선내 그개략을보면한대로 조선의 총인구는 이천일백오만팔천삼백오명이요 그중조선사람이 이천사십삼만팔천일백칠인이어서 큰소리로 이천만동포라고 부를수잇다 그중에가장 궁금한것의하나로 문자보급정도는 별표에도 보엿거니와 겨우문자를 아는사람까지 한하야사백오십사만구천구백팔십일인에 순전한 문맹이일천오백팔십팔만팔천일백이십칠인 문맹세사람반에 문자아는 사람한사람의 비례요 인구뒤만 넉가운데 칠천칠백칠십사인이 까막눈이어 셈이다

이것을다서 녀령별로보면 별표참조)다섯살미만은 문제가되지아니하고 여섯살로부터 아홉살까지의아동의 문맹수효가 일백팔십사만이천오백칠십사인으로 천분비(千分比)에 잇서서 팔팔사쯤마이(八八四、二)라는최고률을보이고잇다 이것은 여섯살로부터 아홉살까지의 조선아동일만명가운데 그대다수인 팔천팔백사십이명이 따하자면 미취학아동으로 조선의 초등교육이얼마나 한심한가를 웅변으로증명하는것이요 그다음으로도 문맹이 만키는 륙십세이상이 만명중에 칠천구백팔십사명식이요 그다음이 사십세이상오십구세까지의 문맹이 만명중에칠천삼백사십사명、그다음이열살부터열네살까지 한창배홀나히에배호지못한 아동이만명중에 칠천이백륙십이명식이요그다음이스물다섯살부터 설흔아홉살 까지만명중에 륙천칠백륙십오명식이오 제일유식자가만타고볼녀령계급이 스무살로 부터스물네살까지로이것은 매 만명중에문맹이륙천사백구십일명이라고한다

一、總人口 二一、〇五八、三〇五人

朝鮮人	二〇、四三八、一〇七人
男	[illegible]
女	[illegible]
內地人	[illegible]
外國人	[illegible]

二、文字普及程度別人口(朝鮮人)

文字를아는者	四、五四九、九八一人
朝鮮文만아는者	三、一六六、四七八人
朝鮮文及日本文을아는者	一、三六七、一七八人
日本文만아는者	[illegible]
文盲	一五、八八八、一二七人

年齡別文盲數

年齡別	文盲者數	人口千에對한比例
五歲未滿	[illegible]	一〇〇〇·〇
六—九	[illegible]	八八四·二
一〇—一四	[illegible]	七二六·二
一五—一九	[illegible]	[illegible]
二〇—二四	[illegible]	六四九·一
二五—三九	[illegible]	六七六·五
四〇—五九	[illegible]	七三四·四
六〇歲以上	[illegible]	七九八·四
計	[illegible]	七七七·四

往昔文化中心地 嶺南이最文盲窟

—平南、京畿順序로最低率— 道別로 본文盲統計

이제다시 문맹의 각도별표(各道別表)를 가지고볼때에 우리는 의외로놀라운 현상을발견할수가잇다 즉과거에 유생이만히사러잇서 문화의 중심지가되고학문을 숭상하든 경상남북도가의외에도 문맹의 수위를점하고잇다는것이다 수효에 잇서서드경북이 일백구십칠만 사천구백륙십일명 뿐아니라 천분비가팔삼이쯤이령(八三二·〇)이요경남이 일백륙십구만 륙천구백 이십이인에 천분비가팔이구쯤팔(八二九·八)로제이위다이현상은 물론거기에 유래된바여러가지 리유가 잇겟스나특히극빈의 농민층이 그인구의다대수를점령하고 잇는것이 큰원인이라고할수가잇다

그러면 이와반대로 과거에잇서서문화적 수준이 떨엇다고보든 훨신뮤젓다고 일러오든 함경남북도나 평안남북도가튼곳은 도리어문맹자의 수효가 적어평안남도는 문맹자수효 구십만의천구십칠명에 천분비로보아 륙륙구쯤마이(六六九、二)로저조선최저위를보인다 이것은문맹자십효 일백사십일만륙천 칠백사수구쯤륙마구(七〇六、九)에제십위를 보이는현재조선문화의 중심지경기도보담도 더문맹의비률이적다

可驚!十一對一

總數九百二十三萬八百四十六名 寒心한女子文盲比率

다음 녀자의문맹자 수효를보건대조고만치 구백이십삼만 팔천사십륙인으로도 녀자 전인구일천삼만구천이백 십구인과 비교해볼때에 문자를해득하는 녀자가겨우팔십구만팔천 상백 칠십삼인으로 문맹자는 구백이십삼만팔백 사십륙명인데 만분비가 실로 구천이백오(九二〇五)나된다 조선녀자를 열사람석거서그중열한명을 추리면 그가운데겨우 한명이 문자를 해득하고 남어지는 모다 까막눈이다

그리고 도별로보면 경긔도가문맹자의 수효가 적기로수위를점하고잇고 제일만키로는 역시경상남도다

三、道別文盲數

道名	文盲總數	人口千에對한比例	順次	男	男子千에對한比例	女	女子千에對한比例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昌城郡에强盜

【新義州】 지난십칠일오전일곱시경 평북창성군 신창면연풍동(昌城郡新倉面鉛豐洞)주인덕(朱仁德)의집에는몽둥이를가진 장도한명이 침입하야 집사람들을몽둥이로따리며『돈을내라』고 협박하얏스나 돈이업다고 하매 자긔손으로 롱을열고 의복등속을모다가지고다라낫다고한다

平北饑饉民爲해 調査員을派遣

【新義州】 평북니산간부락일대는 금년에상십년래의 큰홍작을맛나 수확녹거의전실하고 엄동을당하야 괴한이 뼈에숨여들되 엇지할도리가업서 구제를부르짓고 잇다는소식이 매일과가티 평북도청으로들어오는데 평안북도에서는 그구제방법을 강구하기위하야우선조사원을파견하기로하얏다는데조사원은다음과가튼데반으로난호아지구히조사임무중에드구급책을하며그조사의필요한가안의한가를 강구할것이라는데 신급선무로조사케하리라한다

平北饑饉民調査班

調査期間 十二月開始 擔任者

▲江界、厚昌、慈城、渭原 潮技手

▲義州、朔州、昌城、碧潼 楚山 七日間 擔任 野中技手

▲龜城、泰川、寧邊 七日間 擔任 石田技手

▲博川、雲山、熙川 八日間 擔任 野中屬託及吉田濟囑

그런데 이조사반은 이십일、일제히출발하야 각각 담임구역을향하얏다

今日이冬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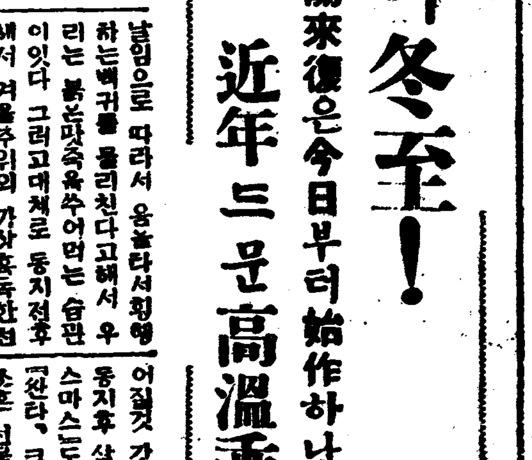
一陽來復은今日부터始作하나 近年드문高溫乖候

오늘이 동지(冬至)— 태양이적위(赤緯)이십삼도 이십칠분까지 즉 지구의표변에서는태양이갈수잇는 최남단까지 다라나는날이다 따라서 이날에밤은가장길어지고 낫은 속당과가치해가노당라만치 김어진다 그래서 이날에밤으로써 대표되는음(陰)은 그끄테이르고 낫으로써대표되는양(陽)은 그시초를갓고래양은남쪽끗까지나갓다가는도라서는 날이라고하야삼지(三至)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날은 음이가장난흔날임으로 따라서 옹놀라서죄영하는백귀를 물리친다고해서 우리는 붉은팟죽을쑤어먹는 습관이잇다 그러고대체로 동지전후해서 겨울추위의 가장혹독한전초견이시작되는것인데금년에는동지전날에 시룡업시 구즌비가와서 일반으로뚱김한 느낌을통계하엿다

이는년에히이시기에는반드시『시베리아』와 북중국내록 에발달한는고기압(高氣壓)이금년에는아조 발달하지아니한 까닭이다 그러타고 비뒤에는갑작이추어질것 갓지는 안타고한다

동지후 삼일이면 곳오는『크리스마스』도、내일모레—금년의『산타、크로쓰』영감은대체무슨조흔 선물을 가지고오려는지



凶暴殘忍한義父 養子를태기처慘殺

屍體를附近松林속에潛棄 夫妻가隱避中被捉

【新義州】 여섯살된어린아이를 방바다에태기를처서 죽이고시체를 송림속에 감추엇다는잔인악착한 범죄사실이 신의주마전동(麻田洞)에서 발생하엿다 사건의발생은 금월십일밤 열한시경 범인은마전동 사십사번지양회수선업최룡수(崔龍水)(四一)와그의처리정숙(李貞淑)(三三)인데 그들은 자식이 업슴으로거금오년전에 지금열살된 게집아이를 어더다길르는중이오 약한달전에 의주군비현면체마동(義州郡批峴面替馬洞)현리달(玄利達)의아들 금년여섯살된아이를어더다가 일홈을 춘범(春範)이라하고 자긔의장남으로 민적에까지올리고 길느든중 그아이가말을 잘듯지안는다하야 이래학대를 하여오든중에 전긔시각에박그로부터 드라온최룡수는 자는 춘범을깨워갓고 희대를하며매를 따렷든바 춘범은우름을놀곳치지 아니함으로 최룡수는무서운 흉보성의발작하야 그처와공모한후 춘범이발목을 잡아추켜들엇다가 방바다에태기를처 즉살식혓다 그날이밝기를 기다려잔인무도한 최룡수는 아이의시체를가지고 석하(石下)로 가는도중림산장거리부근솔밧속에버리고 그처와갈르든 게집애와도 헤여저 이래일주일동안이나해방을감추고잇섯다

전긔사건이 발생되지 이틀후인십이일정오경 마전동경 관파출소에서는 이사실을탐문하고 즉시 본서신의주경찰서에 보고하얏든바 신의주서에서는 크게놀나산긔사법주임(山崎司法主任)이하개원이 총동원하야 범행이잇섯든집을 림검하얏는데 바바닥에는 피흔적이 맘나부터잇고또 피투성이가된 아이의의복이잇섯다 사법게에서는 각처에지명수배를하는일방、형사를사방으로 파송하야범인을 엄탐중십팔일밤에 니르러、박천경찰서(博川署)의손에최룡수는드듸어체포되고말엇다 범인은 십구일밤에야 신의주에 호송케되얏스나 우선그의자백에의하야 아이의시체잇는곳으로게원을파송하고또그처리정숙의 행방을 엄탐중인데 범인최룡수는 범행을한이튼날(십일일)새벽 그처와작별을하고 신의주 미륵동(彌勒洞)사는김려생(金麗生)을차저가하루지난후 돈사십륙전을 꾸어가지고평양으로간다하고떠낫섯다

手帖속에서·또越年

啾啾徘徊四年間 少婦寃鬼마리아

嫌疑者는全部無罪로釋放

【五】 釜山마리아殺害事件

소화륙년 팔월일일 새벽두시에 저성모(聖母)와 일흠놀가차한 아름다운 얼골의임자 『마리아』가 바야흐로무르녹는인생의몸 스므살의처녀의몸으로 드듸여 활작피여보지도 못하고엇던자에게 무참히살해된 사건이잇슨후 범서사변이다 그동안에이원한의 죽엄의하올 풀기위하야실로 수십명의경관과 열명에각가운 판사와검사가 이지리한사변을두고 범죄수사에 또피의자의취조에 재판에세상의 시청에싸혀서 꾸준이종사 하엿다그러나 한사람의 범인의휴악한계략봉국가가양성하는이원혼우수한두뇌를보다도오히려진룡이어섯돈자 지난팔월륙일대구(大邱)복심법원의이사건에대한최후의재판은피고들을무죄로석방하고시건은또다시수업는새로운의문만터한채오리무중으로몸아보냇다 이이야기 보다도한동안새로운 회제를 제공한것은이사건의유력한 피의자로 검거되엿든정상(井上)이라는사나히와 『마리아』의 주인집이든당시에철도국부산 운수사무소장 대교(大橋)씨의 부인과의 추행이엿다

그래서『마리아』가참살된그현장의 모—든 상항이무슨놀건을때아스려는 동기에서가 아니다고분히 엽기적 흥미를끄으는『께드』척 행위안것과아울러서실로이사건은 더욱탐정소설적인 흥미를 터해갓다

◇—◇

그의시체의 겨테는 저즌내복이잇섯다 그와요드 역시약아저사방 가락지저 잇섯고그방정다뒤에는 와설한 흔적을 남가간『꺼—제』는수건이잇섯다 그우해 방안의전괴는 일부라끈자취가 잇섯다……이것들은 대체 대중적인 탐정 소설속에서그러케도 쉽사리 우리가 차즐수잇는 물건이 아니고무엇이엿든가?

그래서 범인은 아마도 『케리스트』인동시에 탐정소설에 애독자이라는 추측도잇섯다

마츰내 그러한 인물로서 등장한것이 권기정상(井上) 이다

그래나 그범행의 외형은 차라리 어대 까지든지 범행을『컵프라—츠』하기위한연극이고사실에잇서서 그가 대교부인과의 추한장면을『마리아』에게 들키고는 루설될것을 염려하고차라리한생명을 빼아슬러고 한것아 참남동기엿다고 한다

그래서 정상은 제일심에서이사건의 범인의자격으로 무기징역의판결을밧고 그곳모를 감옥생활을마저야 될파국에 빠젓다

그러나 지난팔월륙일 제이심인대구복심법원의 판결은 제일심의 판결을아주 전복하고정상의무죄를선언하엿고 또 그공판에소환되엿든 대교부인도 역시그무범혐의와 또정상과의 추관계까지도 말숙하게 벗기아고그야말로 청천백일의 몸이되엿다

◇—◇

그리하야국가의봉급에참여하는그수만흔관원들의귀신노혀임—

이사건은 또다시 남은해의수첩에서세해의수첩으로옴겨갈뿐사변진 그날이나 이날이나부산부두에 호듥이는 푸른물결소리는 변합이업고 그몸우해의심이무겁든 정상도지금은 어대가서또다시취직 하엿다는둥 마럿다는둥! 또대교부인은 여전히청진(清津)으로 전근한 그남편의품에도라가서 씨슨드시하고 단란하게 살림하고잇다고한다 그야말로 『뿌라우닝』의 시는아니지만 『세상은 아모일 업다』다만 원한에서린『마리아』의어린혼은 부산철도관사 제이호의그최악의집웅미테서 완전히 사라젓는지 마럿는지……

그런데 이사건에잇서서 가장불가사의한비밀은 대교씨 그다그우섭고 더러운세상의 소문에도 불구하고곳까지 그안해의정결을 미터서 변함이업는그관대하고 진실한 남편도(男便道)를보고 세상의마흔 신경질적인남편들은 부끄러워함이 잇서야할게다

一次以後諸結社 關係全部를否認

露西亞共產青年同盟員인 姜進에게十年求刑

로서아에서 생장하야 일즉이로서아혁명이후 중학시대에 로서아공산청년동맹에가입하야 활동하고 간도(間島)로 가서일천구백이십륙년칠월에 조선공산당에가입하야 일천구백 삼십일년 구월까지 전후칠년동안간도、조선、로서아로 드나 드면서 조선공산주의운동에 활동하엿다는 권성만(權成萬) 김칠룡(金七龍)강진(姜進)김(金)『와시리』강(姜)『나브렌치』등 일곱가지 별명을가진 강진(姜進)(三〇)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및 출판법위반피고사건은 이십일일오후 두시이십오분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 재판장 촌전(村田) 검사의 담입리승우(李升雨)변호사의 렬석으로 공판이열려서 오후세시반에 쯧내엿는데 그는예심결정서에 기재된사실은 구십구분이틀린다고 대답하엿다

그는 사실심리에드러가서 로서아연해주해삼위(露西亞沿海州海蔘威)포시엣또 구역(區域)구리베농촌(村)에 출생하야 울에해삼위 국립원동대학 공과(國立遠東大學工科)에입학하엿다가그해십이월 학사곤란으로 퇴학하고 집에도라가서집안농사일을 돌보며 또는야학교교사로잇다가 일천구백이십팔년봄에간도룡정촌(間島龍井村)으로 공부를하려갓다가아모학교에도 입학하지못하고 도로해삼위로 도라갓다고 대답하고일천구백 이십칠년 삼월에리종림(李宗林)과 함께조선에드러와 김재명(金在明) 하명찬(河明燦)、박문병(朴文秉)리계심(李桂心)고광수(高光洙)등과가티검거이후의 조선공산당 재조직에 활동하엿고그뒤에권대형(權大衡)고경흠(高景欽)등과제휴하야 공산주의운동에 련속적으로 활동하엿고 흥남적색로동조합(興南赤勞)사건등에관계하엿다는사실은전부인하고겨우일천구백삼십일년 일、중산현당시에경성제국대학생시천(市川)등수명과리종림(李宗林)등으로더부러전쟁반대격문작성에관계하고 서로회합하야 조선××에대한 연구를하엿다는 송부분의사실만을 시인하엿다 약한시간만에 심리를끗내고 검사로부터 징역십년의 구형이잇섯다 그리고 판결 기일은 미정이다

안개끼인昏衢 電車가轢人

被害者入院後絶命

동지(冬至)를 압두고하야 그후로겨울의최고봉(最高峯)이되는 이십일밤근년에볼수업는괴상한기후는 마츰내 때아닌인을비와 겨아니맛는방안개를 피여경성을 중심으로한 근괴일대에는교통상적지아니한이변을아르키엿는데동일오후 여덟시 오십분경에서내태평통(太平通)일정목조선화재(朝鮮火災)주식회사신축장압에서 제구십칠호 전차를운전수김영달(金永達)이가운전하고 남대문에서 효자동(孝子洞) 으로향하든중 동신축장골목 에서나히 사십전후의조선옷입은남자가 나와 마츰달려오든자동차를 피하야 달려들옴을구하려다 밋처지못하고 마츰내하체(下體)를치엇는데 그남자는 넘어지며 노진향(盧震鄕)이르켜 전중환(田中丸)병원에입원하얏는데 신원은 불명하나동열시경에 드듸여 절명하엿다

안팍房에서 賭博을開場

한편으로사기도박도 本町署서全部檢擧

아홉살때에 로서아 국립소학교에 입학하야 열여섯살되든해봄에졸업하고 그해가을에연추(煙秋)라는곳에가서 국립고등소학교삼년급에 입학하야 열녀덜살되든해봄에졸업하고그다음에는『니코리스크우즈리스크』국립제일호중학교오년급에입학하야스무살되든해봄에졸업하고그해가

한날한시한집안 사랑방과 행랑방에서 각각노름판을 버리엇든데 가 군늘이일망타진되것이 잇다

▲南大門通二丁目一二 金福萬(四二)

▲南米倉町二二一 李順雨(四三)

▲吉野町一丁目三〇 朴浩俊(三八)

▲漢江通阿峴里二 朴炳瑞(三四)

▲太平通二丁目二〇三 權永義(四二)

이상다섯명은 전부상점점원 귀금속상등 신사들인데 십구일오후열한시부터 이십일 오전두시경까지 사이에 시내 어성정(御成町)삼십륙번지 안모의 사랑에서 이십전 내지일원삼십전내기의 화투를치다가 소관본정서원의손에 일망타진이 되엇는데 더욱이 그들중 권영의가 현금이백여원을가지고 엇는것을 남어지네명이 꾸모해가지고 사기도박까지하엿스며(관돈삼십일원압수)동시에 그행랑방에서는

▲市外阿峴里八五의七四 文泰成

(三一) 市外付岩里李順福(二四)

▲市內峴底洞一〇五 李千福(三二)

외세명도 오전내지 이십전내기의 화투를하다가 체포되엇는데(관돈십일원압수)동서에서는취조가 끗나는대로 파료내지벌금의 즉결처분을 할터이라한다

西北凶作地에 食糧給與講究

흉작대책비(凶作對策費)로림시의회에 요구한 함남북(咸南北)강원(江原)평남북(平南北)등다섯도의 흉작농민의 식량급여비(食糧給與費)는내장성의 사정(查定)에서 삭감되고 실현되지못하얏스나 요컨총독부 사회과에서 파견한 조사위원의보고에의한 흉작지의 참상은도저히 아니되겟슴으로 총독부에서는 바금 여러가대한대책을연구중인바 결국 구정월설을 쇠일때까지가 가장 비참하겟스므로그중에심한곳을 가리여가지고 지급히 시량을급여할 필요가잇다하야 이재원(財源)을 지방채로요구하야 응급 조처를하기로방침을결정하얏다

補精强壯劑

大阪朝日新聞報導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

世界的靈藥 淫羊藿엑기스錠

大阪朝日新聞報道(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公開

淫羊藿은 支那一部와 平北에서만野生하는貴重한藥草로古來로부터上流家庭에서貴重히使用하든藥으로特히補精强壯劑로驚異的効能을發揮함은一般醫學界에서周知하든事實이든바 (最近에白石警察部長自身이淫羊藿엑기스를實驗한바참으로놀내일만한特効잇슴을證明하엿合으로目下衛生課에서는(모로못도)와家兎에게淫羊藿엑기스를與하야實驗한結果其効力이驚異的으로顯著함을證明함) 補精强壯劑로널리紹介하면實驗한効力에依하야朝鮮人蔘을壓倒할時期가不遠하리라思함(以上은衛生課에言明)

第六回日本藥理學會에서發表한學說

主治適應症

房事過度、手淫、早漏、遺精、夢精、男女不感症、性慾減退、腎氣不足、補陰補陽精力增進、性的神經衰弱、消化不良、貧血、冷性、健忘症、食慾不進、

藥價二十五日分五圓、六十日分十圓 百三十日分貳拾圓

製造元 京城公平洞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二·電光一三五六

前醫學專門學校敎授 醫學博士 京城帝國大學醫學部講師 朴昌薰先生監製

幽玄神秘의漢方醫術과現代醫學과의完全한融合에依하야創製된劃期的興陽强壯劑

부인성약 益母草엑기스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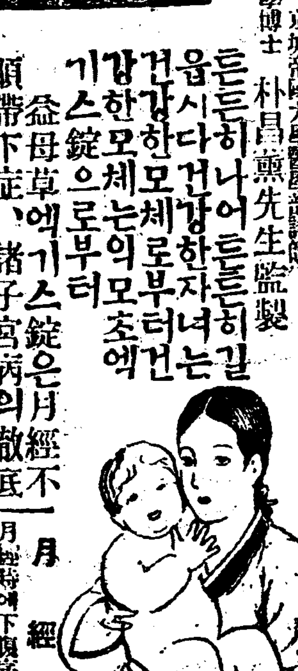
튼튼히나어든든히길읍시다 건강한자녀는 건강한모체로부터건 강한모체는익모초엑기스錠으로부터

前醫學專門學校敎授 京城帝國大學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益母草엑기스錠은月經不順 帶下症、諸子宮病의徹底的治療와産前産後의養生에 國際的藥으로確認된古今唯一의婦人聖藥이니다또男女를不拘하고神經衰弱諸冷病 消化不良에特効가잇습니다

主効 냉병、경도부족、적백대하증、저혈、히스테리、혈기부족、하초허랭、수족궐냉、오줌소태、안색창백、산전산후、제반약증、경도시허리와아래배압흔데、상기와두통、구역나는테、부종、무시출혈、면종증、남녀불구하고신경쇠약、냉병、소화불량에특효

藥價十日分二圓 卅日分五圓 七十日分十圓



月經不順

月經時에下腹痛이나며全身이느른하며成年이되여도月經이업는婦人또는月經時期가一定치안이한婦人이本劑를服用하사면卓効가잇슴니다

産前産後 姙娠中

에는姙娠惱氣、姙娠腎臟炎等諸病이發生키쉬음으로益母草엑기스錠을繼續服用하사면母體는健康케하며胎兒發育도順調로됨니다또産後本劑를服用하면惡血이잘나와新鮮한血液을養하며母體의恢復이速합니다

帶下症과子宮病에

子宮內膜炎、膣炎、膣가다루、淋毒性子宮病으로因하야下腹痛이甚하고帶下가잇는婦人은本劑를服用하시오

特約店募集

本舖 京城府公平洞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二·電光一三五六

代理店 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 新井藥房 京城本町 木村藥房

暴風으로漁船遭難 乘組員五名溺死

八名中三名만은多幸히救助 熊津近海에서이慘變

【甕津】 지난십팔일오전삼시경에 강원도철원군산리(鐵谷面葛山里)김모(金某)의고기잡이배사원산을갓다오다가고무나로(熊津)근해에서폭풍을맛나전복되여승조원팔명중오명은무참히도익사(溺死)하고삼명은요행히 지나가던발동선을맛나 구조되엿다는데 손해액은 방금조사중이고 사망자는 아래와갓다한다

鐵谷面葛山里 李[illegible]學(三[illegible])
同 金泰鉉(四○)
同 朴文楨([illegible]五)
同 朴鳳熙(三○)
元山 劉 某(三一)

繁榮會를組織 港灣發展講究

【通川】 통천군순령면고저항(順嶺面庫底港)은 동해안에잇서서 그리뎌지안흔 항만이지만 동해북부선이 개통된 이후로는 교통이 편리하여잇는회양군(淮陽郡)에서 물은전부통천여울거처수출될뿐 아니라 축항이 불완전한까닭에 어상선출입이 불편함으로 이래 오륙년간에 시가지가 퇴폐하며 점점 목도한유지제씨는 분번이 결의하여지난번 번영회를 조직한후 순령면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아래와가튼 안건과 임원을 선거하엿다고한다

◇決議事項
一、港灣、順嶺間道路開拓의件
一、市內道路及下水港灣修築의件
一、海水浴場設備에關한件
一、叢石亭通路修繕에關한件
一、叢石亭美化保存의件
一、港灣警備의件
其他
◇任員 會長=李東根 副會長=藤井福七 幹事=宋羽 金英秀外六人 書記=池範龍 會計=河村權吉 顧問=康璨義 中島正太 外十一人

競進會授賞式

【扶安】 부안군에서는금년농촌경쟁이란 목표로각종 권업과 농촌진흥에대한 경진회를 개최하엿다는데 지난십팔일에 부안군농회 주최로 부안보통학교교실에서 좌귀(金[illegible]署)로 포상수여식을 고지사(高知事)이하 다수래빈 참석하에 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一、賞狀賞品授與
1、農村振興會共同耕作畓苗代及多收穫品評會
2、棉作增收競進會
3、堆肥增收競進會
4、除稗競進會
一、全羅北道道路競進會 棉作

復舊設計에耕地犧牲 迫間農場作人動搖

農場은設計變更을拒絶함으로 作人側은抗爭을決意

【金山】 지난여름의대홍수로 말미아마 참담한 피해를입은진영(進永)박간농장(迫間農場)이복구비용 국십이만원으로 그칠할을 국고에서 보조를바더 그공사설계안이란것이 일부소작인의 경지를 희생하야 방수저를축조하고수류지(水溜地)를맨들게되엿슴으로 이러케되면 경지를빼앗기게된다고하야 수류지 설치예정지에 편입된 소작인들이결속하야 동설계안을 반대하여단원까지 하얏스나 량년간이나 수해를입은 농장에서는 피해를 근절식힐 방책으로 게다가총독부당국의 원조를바든 설계이므로 예정대로시행할것 이라는데 이로인하야 농장대소작인의 감정문제는점점악화되야일부소작인들은 항쟁할결의를 가지고상당히동요되고잇다한다

延坪島遭難漁船 建造費補助決定

慶南道內百餘隻에

【釜山】 지난여름에황해도연평도해안에서 폭풍우로 인하야조난한어선(漁船)은경남도내어선[illegible] 이십사척 합계일백십구척 이라는데 그복구비의국고보조로 선박건조비의 삼분지일을 지출할것을 결정한통첩이잇서 경상남도수산과에서는 실지조사에 착수하엿는데 새로히 건조하는자에게는 도비(道費)에서도 약간의 보조를하야명춘삼월이내에는신조케하리라고한다

槐山蹴球團定總

【槐山】 충북괴산에잇는괴산축구단 제륙회정긔총회는 지난십칠일 오후칠시 동단사무실에서각신문 긔자초대하에 단장류한수(柳漢秀)사회로 개회하고 임원선거와 사업을 다음과가티결의하엿다한다

委員
團長洪元植 運動部長安吉祚 庶務部長金爾禹 警衆部長柳漢秀

討議
一、氷上大會開催件
一、第七回全槐山蹴球大會開催件

小作調停實話

實際로發生된 小作爭議批判

平北의山間部는爭議가업서

新義州支局 活海生

조선농민의수효는조선전민족의팔할이상을점령함으로조선농민에관한문제는거의 조선전민족에관한문제라하야도 관언이안이리만큼 중대한 문제이다이 농민의생활안정을 위한다는조선농지령이 금번실시됨에 부[illegible]선농민에게밋는영향이엇더할가? 하는관심을 가진이가 각방면에서 그법령의취지와 내용을널니소개하고 따라서 지주대소작인관계가 엇지되리라는것을 리론으로도 발표한것이 만흐되 실제에잇서서 소작계급의 농민은 대개 지식정도가유치함으로 이를리해치못하고 따라서그 영향될바를 알지못하는 사람이 만타 그럼으로 리론이나가설려 발생된 문제를가지고론[illegible]보다도 실제에서 [illegible] 자극을줌이크지안흘가생각한다즉 농민에관한실제문제를취급하는관(官=小作委員會)으로부터 행한 실례를들어 이를설명하고 론란토의를 행케되면 자연자극이 만흘것이라함이다 그 방법으로우선 평북에서 닐어난 소작조정의 실제문제를 들어일반의외압해 꽁개하고 이를토의론란하야 일반의참고에 공여할도 결코 무의미한일은 안이다그러나 평북은소작인의수효가 남조선보다 적고지주와 소작관행(小作慣行)이 남조선과 다른 [illegible] 새로 다툼으로 소작쟁의(小作爭議)란것은비교적적음으로 농지령실시 이후의 소작조정(調停) 판정(判定) 등은 거의업고 그저금년내에 소작위원회에서 행한 조정의 실례박게는 들수가업지만은그사실은어떤농민에게도 공통될성질의것이며 또이와류사한사실에 참고재료를 삼을수잇슴은 틀림업는일이다

◇……◇

평안북도에는 총인구 일백오십오만명중 그구할에갓가운 일백삼십만명이란것이 농민이다 그리고 다수농민의팔할은 산간지대의 세농민이오 남어지이할가량이 평탄지대의농민인테일반적으로 소작관행은타조(打租=地主와作人이折半)요 산간지농민은 거이무식함으로 소작쟁의란것은산간부에는거이업다그리고이평탄지대에서발생한금년중의 소작쟁의는 건수로불과삼십칠가이원 백명내외인데 단체로서 닐어난소작관계의 쟁의는정주서수농장(定州瑞穗農場)대정주농민사(定州農民社)의쟁의다

定州農民社對 瑞穗農場爭議

정주서수농장대정주농민사남면지사(南面支社)의쟁의원인은 서수농장에서는『벼(正租)의 품질을 향상식히기 위하야각 소작인에게 당긔(唐箕=風選子)와채(篩)를 사용케할터이니 【각소작인들은 이를설비하라』하고 또한 『소작인들은당긔를 설비할자금이 업슬터이니 농장의자금으로써 이를공동으로 구입하야 각소작인들에게 난호아주고 그대금은 금년추수때에벼로내리라』하얏다 그리고 당긔(풍구자)는한대에 운임을합하야 이십칠원식으로하야 아십대를 구입하야가지고 한구(五反步耕作)에한대식을 돌나준후금년가을에 각소작인에게 대금을징수코저하얏다 이에대하야각소작인들은 유유복종으로지주의말대로대금을지불하엿스나유독정주농민사남면지사의소속열하명의소작인만은이에불복하고쟁의를이르켯다 이소작인들의주장은 저혀철저치못하고 또자겁하야 심히연약한 주장을하얏는데 즉 소작인은 모다가난한 사람들이다 예상외의 지출인 당긔의대금을 한 꺼번에는 도저히 지출 할수가 업슨즉、이를삼개년에 난호아 지불하겟다 만일농장에서 이를불응하면우리는 일체로 당긔를사용할수가업다 함인데 소작인들의결속은 단단하고 정주농민사가 이를지지하야 긔세는 매우올낫섯다

實際調停과 和解의顚末

그리하야 정주소작위원회에서 조정(調停)을 하게되얏는데 두어차례 위원회를모으고 또당방의의견도 듯는중에 농민사에서는 여러차례의원회를모으고 여러가지로 대책을 토의한결과 무엇에 자겁하얏든지 농민사의 대표자 전찬배(田贊培)는 농장장 일야원신(農場長日野原信)을 방문하고 거위삼개년 년부를 주장하얏스나 아개년년부로 대금을 지불할터이니 그리하야 달나고 요구하얏다 이에대하야 일야농장장은 『농장의돈은 절대로 그와갓치할수업고 금년에귀부를다내여야만한다 그러나 사정으로 정말그러타면내(농장장)가 개인으로 그대금을 대신 납금할터이니 이년에 난호아 나에게지불하라』

하야쟁의는소위 원만히 해결되고 소작위원회에서는당사자들이 원만히 타협한이상 터자진하야 간섭할필요가 업다하야 쟁의는일어난지 한달반마에해결이되고말엇다

─(끗)─

比昨年二倍激增인 南浦署管內犯罪件數

總件數二千三百六十一件으로 게다가新記錄이라고

【鎭南浦】 진남포경찰서에서 취급한 본년도검거수는 이천삼백륙십일건으로 작년도 일천륙백이건에비하면 거이 배나증가되엿다는데 이것을 종류별로보면 절도가최고이고 다음으로는 사긔、횡령、상해인바 진남포경찰서개설이래신긔록이라고한다

煙草買上에不平

【靈山】 경남령산에서는 례년과가티 대구전매국에서 엽연초를 매수한다는데 금년에는 곡가에비하야 가격이너무 헐하므로 각경작자는 명년도에는가격인상을 요망한다는데 년산액십여만원의거액에달한다고한다

邑長의專橫에激憤한 數百洞民暴動化

洞意無視하고區長任命햇다고 警官出動으로겨우鎭壓

【定州】 지난이십일오후세시경정주읍 사무소에는 난데업는 수백군중이 살도하야 읍장(邑長)라창섭(羅昌燮)씨를 상대로 격렬한 론쟁이전개되든중 그형세가자못 험악하야 경찰의출동으로겨우 진압식히엿다는데 이제 그원인인즉 십여일전에 동면서주동(西洲洞)한찬균(韓讚均)씨가 사임하게되자 일반동민들은동회를열고 구장을 선택추천하려고하든중 구장은 임이읍장으로부터김장중(金長仲)(二六)씨를임명하엿다는 소식을 듯게되여동민들은 읍장의동의를 무시한독단적 처치에 격분되야곳대표팔인을 읍장에게 보내여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엿든바 읍장은 전긔대표를향하야 불량청년이라 실언을하엿든바 이소식을접한 동민들은 감정이극도로악화되여 마츰내그와가튼 불상사를 이르키게 된것이라는데 일반은 이번일은 읍장의비인격적행위라고하야 비난이 놉나고한나

紅燈아래美談

【歙谷】 붉은등불아래서 돈푼이나 쓰는「유야랑」들에게 온갖설음과 멸시를바더가면서 푼푼이 모은돈 오원을가지고 와서이것이 적은돈이나 나의정성것 드리는것이니 유치원교육사업에 보태여써달라는 홍등아래 갸륵한마음씨의소유자인 한엽(韓葉)은녀인이 잇섯스니 그는원적을강원도 김화군지오면창도리(金化郡持梧面昌道里)에두고 현재흡곡면사재리전인묵음식점(歙谷面[illegible]飮食店)에작부로잇는 신례자(申禮子)(二○)로서례자는약일개월전에 흡곡에와서 전기음식점에잇든중 방금건축중에 잇는 흡곡유치원을 위하야 그와가티현금오원을 가지고와서 해유치원 기성위원회(期成委員會)에전한것이라한다

學級延長協議

【靈山】 경남령산 공립보통학교장 산하(山下)씨는 부임이래로 아동교육과 모든시설에 특별이노력하여오든바 특히명년도부터는 구학급으로 연장할것을 지방유지와협의중이라는데 일반은 만흔기대를가지고잇다한다

모히密賣者檢擧

【龍岩浦】 근년룡암포에는 모히소굴이만연하야 모히중독자와 밀매행위가 극히하여 지방의 풍안을 초래하여오던바 지난사일룡암포경찰서에서는 돌연시내 이괴성(高碁成)(三一)을 검거인치하고엄중히 취조한결과 다량의 모히를 밀수판매한사실이 탄로되여일건서류와 함께신의주 검사국으로 압송하엿나하며 그와 관련하여 지난십팔일에는시내 오성련(吳成煉)을또검거취조중인데 그도 모히밀수사실이 탄로된바이라하며 룡암시내에 오륙처의 소굴이 잇다하는바 당국에서는 금후철저적으로 소탕할계획이라 하며 지방주민들은 하로밧비 검소하여주기를갈망한나고한나

竊盜犯逮捕

【丹城】 경남산청군신등면계주사야촌(野村)모는지난십칠일에 당성말면에 출장하얏다가 그날밤에 군직원모와가티시장농협(?)모의주청에 섯마취가되여 자다가 포켓에너헛든돈 이십원오십전어 업서진 것을알게되여 주재소에 계출하엿든바 성내리(城內里)리개이(李介伊)(二三)의소위로판명되엿다한나

慘! 飢寒에못이겨 電線에縊首自殺

【仁川】 시내우각리(牛角里)사십칠번지리경태(李慶台)(四三)는 그날그날의 품파리를하야겨우 연명하야가는 형편이엇는바 수일전부터는 정미소조차 휴업을하야 그날의연명이 문제일뿐 아니라 원수에 겨갑까지삼배나 빗싸저서 방에 불조차때이지못하는 참상임으로 견듸다못하야 지난십구일에는그안해김씨(金氏)(四三)에게이런고생사리를하는니보다는죽는 것이낫다하며아편을사오라고강권하다가 내외간싸홈까지 하게되야 그안해가피한사이에 동일오전일시경 도전선(導電線)에목을매여자살하얏다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新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漁大津支局 位置 咸北漁大津港
右任支局長 蔡天乙
支局長 崔鳳[illegible] 右依願解任

長津支局 位置 長津郡下碣市
右任支局長 朴英浩
主任 金熙德 右解任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鶴橋分局 位置 湖南線鶴橋驛前
分局長 李宗範

謹告

端川支局 記者 李明均 右新任함
漁大津支局 記者 方東旭 同 元範龍 寫眞班記者 孫尙昊 右新任함
淸津支局 記者 金南渺 右新任함
車輦館支局 顧問 李浩彦 同 白炳璋 右新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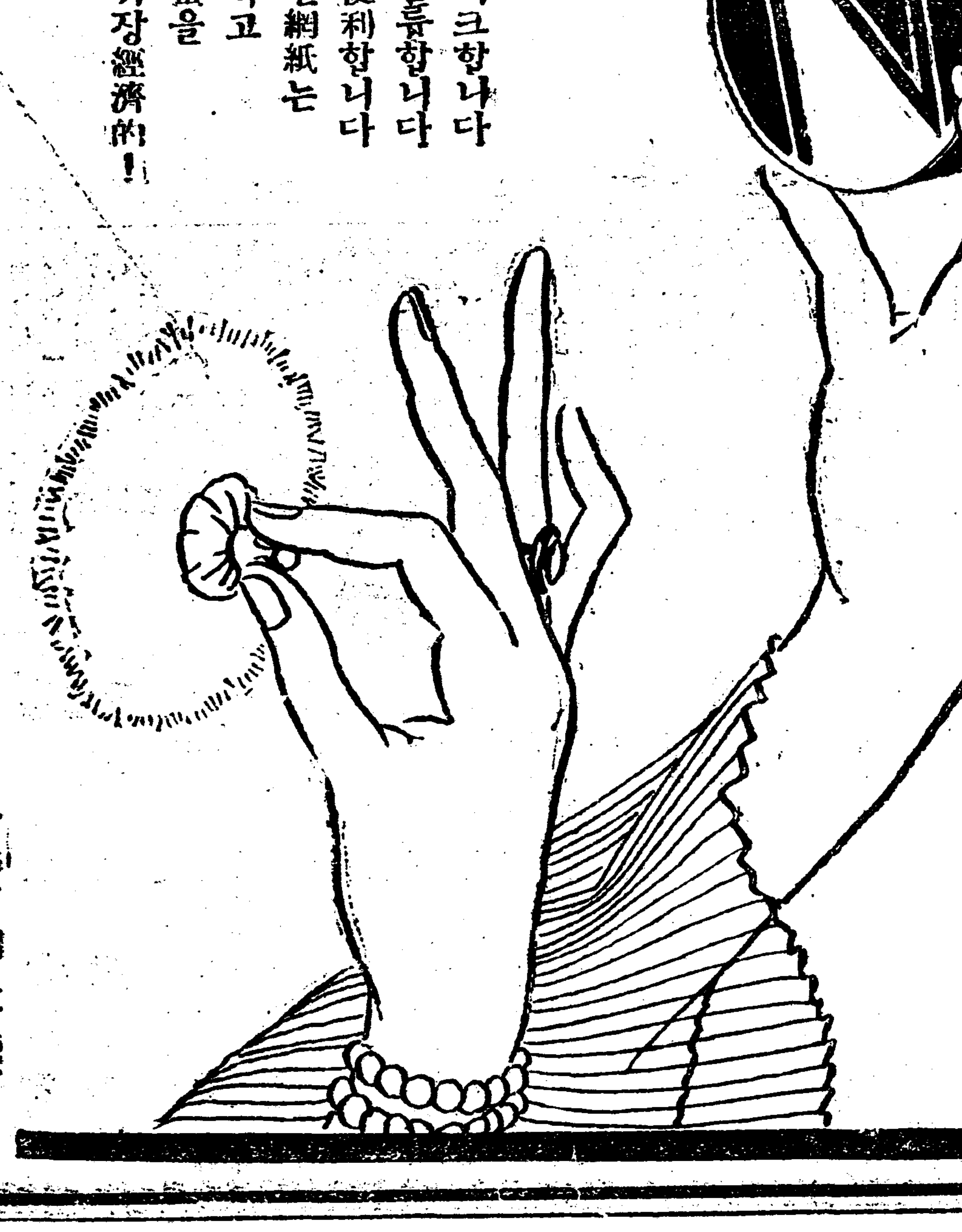
クラブ白粉

구락부

流行의精華로써

果然暴風雨가튼絶讚을밧는
구라부백분의알루미罐入
「훌륭하게되야、大好評」

容器는斷然쉬크합니다
化粧効果는훌륭합니다
携帶에極히便利합니다
더구나添附된網紙는
粉의飛散을막고
適當한使用量을
調節하야서가장經濟的!



(正價一個三十錢)

筆生
[illegible]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illegible]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비듬·가려움을막고
潤澤내고氣分조흔
東光ホマート

壽 カヴィドール (가비도루)
アーロイ高級萬年筆 第三回 景品
新製宣傳景品附特賣 大サービス
(特大)十四金ペン [illegible] 特別元價 只の 七十錢 (品質三年保證)
製造元 東京市宮園通三丁目 鈴木合名會社 振替東京九九八六番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光二四九

今年의掉尾總奉仕

商品具備 價格低廉 景品豊富 斷然第一

景品特等六十圓부터六等十錢까지空籤絶無함니다
買上金額二圓에抽籤券一本、五十錢에補助券一本進呈
景品期限=十二月三十一日까지
地方注文大歡迎景品進呈

平壤鍾路 平安百貨店
電話(代表)二一〇〇番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